

광주 4차 산업혁명...전남 SOC·미래혁신 산업 반영

■ 광주·전남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사업명	총사업비	'19 반영액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건립	400	4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180	6
안과/광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	180	15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 상용화 실증·확산	155	25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구축	269	21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센터 설치	112.5	15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290	57
마이크로 의료로봇 성장생태계 조성 지원	440	11
혁신성장센터 건립	825	23
제2허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500	5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4.3	2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49	20

사업명	총사업비	'19 반영액
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2,402	42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	400	80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추진	480	50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210	24
EVESS용 이차전지 재사용, 재제조 시험연구센터 구축	3,880	20
신재생에너지 연계 70KV급 전력기기 개발 및 실증	250	18
에너지신산업 DC 플랫폼 구축	250	13
미래형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485	40
가동지역 식수 전용저수지 축조	833	18
국가 백신제품화 지원 및 정보기술 센터 설립	213	11

내년 국비예산 광주 2조149억원·전남 6조1041억원

광주, 세계수영 증액분 등 36건 1003억 반영 안돼 전남, 경전선 전철화·전기차·백신 사업 추진 탄력

광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이, 전남은 전기차·백신 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낙후된 SOC 현안 사업들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 미래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반영=광주시에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광주시의 신규사업은 52건, 616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 센터 건립(40억원) ▲안과 광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15억원)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 상용화 실증·확산(25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57억원) ▲혁신성장센터 건립(23억원)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 사업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과 연계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며, 안과 광

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 사업 등도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과 혁신성장센터 건립 등도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증액분 등 광주시가 요구한 36건 1003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현대미술관건립(5억원)과 세계지질공원국제플랫폼센터조성(2억원) 등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14억원), 빛그린산단(국가) 진입도로 건설(81억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인증센터 구축(30억원) 등의 사업 예산도 미반영됐다.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내년 정부예산안에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169억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애초 책정된 총사업비 1697억원에서 538억(국비 169억·시비 175억·기금 126억·후원금 등 자체예산 68억) 증액된 2235억원으로 총사업비를 늘려줄 것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증액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SOC·미래 혁신산업 대거 반영=전남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던 SOC와 전남의 미래 혁신산업으로 꼽힌 미래형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백신 글로벌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이 대거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SOC 사업은 애초 정부 부처가 반영했던 예산보다 늘어난 게 특징이다. 남해안철도 건설의 경우 국토부에서 1850억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에서 2900억원을 반영해 1050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도 국토부는 210억원을 반영한 반면, 기재부에서 500억원을 증액해 260억원이 반영됐다.

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이 신규 반영돼 '호남차별 90년 골레'에서 벗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그동안 경전선 호남구간은 단선 비전철로, 이미 전철화가 이뤄진 영남구간과 대비돼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왔다. 총 사업비 2402억원 중 전남도가 5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42억원을 반영했다.

미래형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들도 시

를 걸게 됐다. 이 분야 사업은 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반영한 예산보다 크게 증액됐다. 미래형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의 경우 산자부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기재부에서 40억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사업도 산자부는 5억원의 예산을 절감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75억원을 증액해 80억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도 산자부가 5억원을 반영한 반면 기재부는 500억원을 반영했다.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과 국가 백신 제품화 및 정보기술센터 설립 사업비도 부처가 반영했던 것보다 기재부에서 늘었다.

다만, 지역 숙원사업의 하나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및 통합 속도 건설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은 제외됐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약 사업으로 전남도가 공을 들였던 예코생태식물공원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또 내년 한상대회 개최 등으로 시급한 예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소득주도성장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며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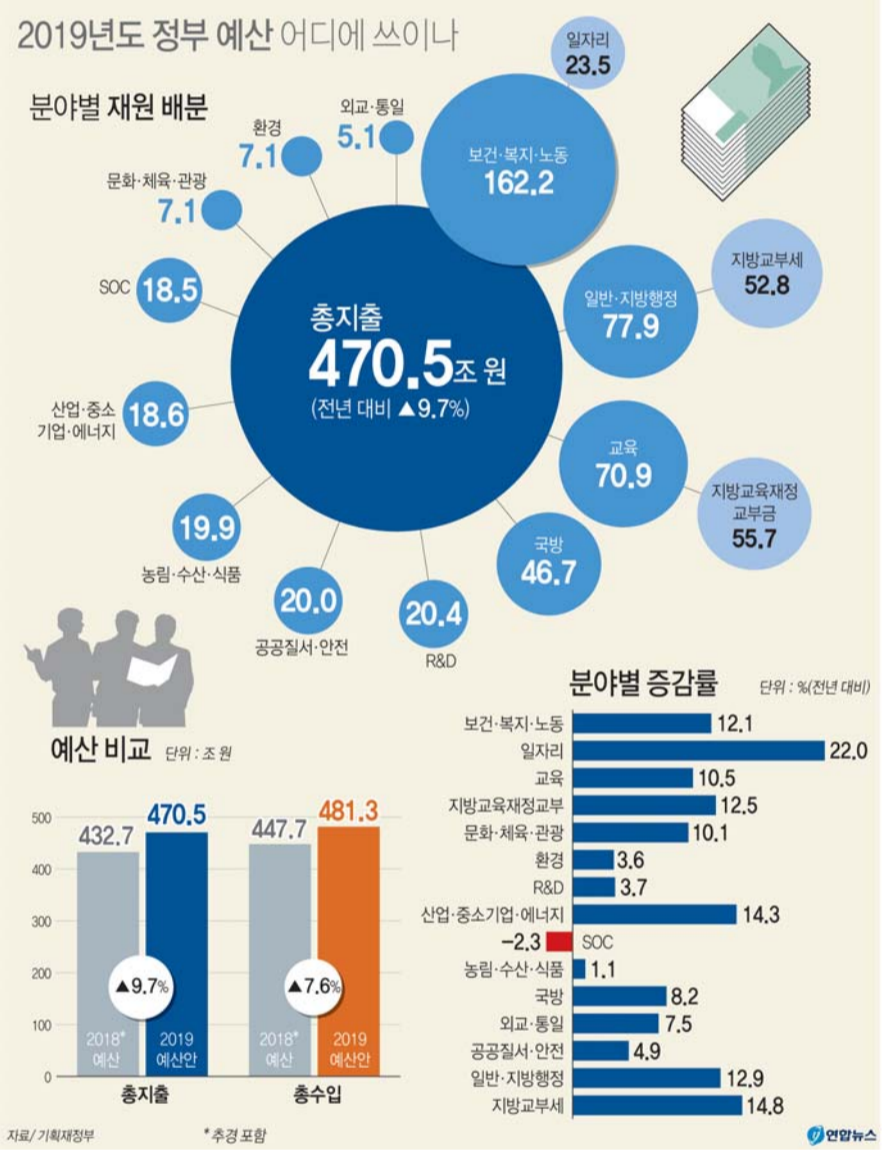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남북이 합의한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북정상회담은 9월 중에 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9월 중에 회담을 열려면 남

북 실무회담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이 실무적 이유로 시기가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과 적절한(회담) 시점이 정해지면 실무적인 절차는 그에 맞춰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다”며 “지금 공개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쪽과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황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막힌 곳을 뚫고 좋은 길을 넓히는 데 남북정상회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햅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풍격] 499,000원~
- 기타큐슈, 햅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풍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풍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취미 여행, 가족,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향!!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풍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풍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향!!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풍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2인실 기준), 1인원 여행자보험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빙) & 코코넛 비누 1SET(용품) • 필리핀 현지 공항(700패스/인원) 포함
* 체일디(빙 무료강습, 라우리루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라인 등)
* 80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니 문의합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다림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부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쭉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동주최: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당상품) 1인당,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1인당 100만원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종(단, 기사/가이드 별시, 선박업종, 각각 비자발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